

돈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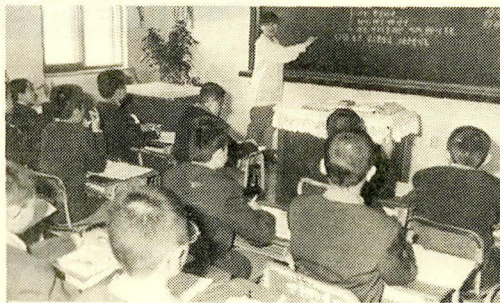
“내키지 않지만 안 할 수 없다”

학부모, 고학력·고소득일수록 이기적 행태 보여

학부모들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이나 현재 자녀가 다니는 국민학교의 교육여건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는 자녀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돈봉투와 같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내자녀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진주 YMCA참사랑회(회장 송현숙)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주시내 어머니 6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이 된 어머니 중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8%에 그친 반면 만

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절반 이상(만족하지 못하는 편이 다 42.5%,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가 개선되려면 원활한 통로가 돼 줄 학부모 모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문제는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지적하면서
“봉투 들고 학교 찾아갔다” 79%

문제의식과 해결 사이의 모순된 행동 드러나

10.6%)으로 나타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29.4%)까지 합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교육여건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것은 어머니들이 국민학교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의 잘못

된 교육열(46.9)을 꼽았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열악(40.7%),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37.3%), 획일적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34.1%), 교사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너무 많다(29.6%),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등이 그 다음으로 꼽혔으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학부모 자신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질문의 결과와 상반되는 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79.8%가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중 84.1%가 방문시 음

료수(27.6%)나 돈봉투(26.3%), 상품권, 선물 등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학교를 자주 찾지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어머니들이 학교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30.0%), 학교나 선생님이 어렵게 생각되어서(21.5%)등의 원인이 꼽혔기 때문이다.

학교에 돈봉투를 자주 들고 가는 어머니들일수록 학력이 높고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중상층 사람들이 현재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

면서도 직접적인 자녀 교육에 서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주YMCA참사랑회는 돈봉투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오히려 학부모들로 하여금 돈봉투의 지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간의 원활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 모임이 보다 활성화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